

광주 광산구 고교, 원거리 배정·과밀학급 숨통 트일까

시교육청, 2027년 광산고 신설 구 하남초 부지에 504명 규모 명진고교 남녀공학 전환 승인 "학생들 통학 불편 없도록 최선"

광주 광산구 지역 고등학교 원거리 배정과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점을 찾을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027년 구 하남초 폐교 부지에 광산고등학교(가칭)를 신설하고 명진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본격 나섰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산구는 중학교 배정대상 학생수보다 고등학교 신입생 정원이 적어 학급당 학생수 30명 이상의 과밀학급, 원거리 통학 등으로 인한 민원이 많았다.

이에 시교육청은 오는 2027년 하남2지구 구 하남초교 폐교 부지에 18학급, 504명 규모의 광산고를 신설한다. 광산고는 2027년 6학급, 168명 규모로 출발해 2029년 완상학급으로 운영된다.

광산고는 교육환경평가,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를 거쳐 현재 설계공모를 진행하

고 있다. 이어 내년 4월까지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2025년 9월 착공해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최근 학교법인 도연학원에서 신청한 '명진고 남녀공학 전환'을 최종 승인했다.

광산구에 위치한 명진고는 여자고등학교로, 학생 지원이 급감하면서 2024학년 도에는 신입생 수가 1학급 20명까지 줄어 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5일 학생 충원과 효과적인 양성평등 교육 실현을 위해 남녀공학 전환을 신청했다.

시교육청은 남녀공학 전환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2차례 회의를 거쳐 학생배치 여건과 학교시설 및 제반여건, 교육과정 운영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남녀공학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명진고의 남녀공학 전환으로 남학생 수가 확보돼 신입학생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광산고 개교, 명진고 남녀공학 전환으로 과밀학급 문제, 원거리 배정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명진고 학생 입학 추이 등을 고려해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학교 정상화와 관련한 전담팀(TF)을 구성해 주요 현안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광산고가 신설되고 명진고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면 광산구 지역 고등학교 원거리 배정, 과밀학급·과대학교 운영 등의 문제가 해결돼 학생·학부모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해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와! 방학이다 광주지역 일부 초등학교의 방학이 시작된 23일 광산구 금구초 학생들이 방학식을 마치고 환호하며 집으로 향하고 있다. 개학은 오는 8월 21일(29일간)이다. **김양배 기자**

광주 서구, 도심공원 무료 물놀이장 2곳 개장

내달 18일까지 무료 운영 상무시민공원·쌍학어린이공원

광주 서구는 8월18일까지 상무시민공원·쌍학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물놀이장은 △평일 오전 11시~오후 5

시 △주말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시설점검과 대청소를 위해 월요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서구는 수질관리를 위해 매일 물놀이장 물 교환 및 담수전·주변 청소 등을 실시하고 주 1회 이상 저류조 청소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서구는 물놀이장 이용객 혼잡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서구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리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요원 4명을 물놀이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아이들이 집 앞에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심공원 물놀이장은 무더위를 피해 찾는 서구의 핫플레이스"라며 "주민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

남구,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강력 조치

광주서 첫 견인 조치·견인료 부과 사고 예방·통행 불편 해소 기대

광주 남구가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고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최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급증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다.

남구는 23일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나뒹굴고 있는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를 지난 1일부터 견인 조치하고 있다"며 "불법 주·정차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 조치한다"고 밝혔다.

광주 지자체에서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함과 동시에 대행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행정 조치를 취한 것은 남구가 처음이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에서 주·정차 금지 장소로 규정한 교차로와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에 방치된 전동킥보드와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이 다.

남구는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대여업체에 자진 수거 이동 명령을 내린 뒤 20분에서 1시간 이

내에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견인에 나서고 있다.

또 1대당 견인료 1만5000원과 함께 최초 30분당 보관료 7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남구에서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견인 조치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41대, 대행업체에 부과한 견인료는 61만5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남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환승 주차구역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관내 20곳에 환승 주차구역 조성에도 나서고 있다.

환승 주차구역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가 많은 곳과 이용자가 밀집한 학원가 등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표지판과 함께 노면 주차선도 표시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불편을 겪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고, 대여업체에도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나 적극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강력한 대응에 나서게 됐다"며 "이용자들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구는 상반기에 문성중과 주월중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12회 실시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박찬 기자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어린이집·유치원·한옥 내·외부·방바닥·전원주택·경로당·아파트·펜션·찜질방·카페·홈 외벽·목재·양어장·물탱크·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 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 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숯,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엄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숨쉬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태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D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